

죽은 쥐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쥐가 먹던 것들도 다 치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 죄된 상황,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개인 대(代)에서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대를 걸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영향과 관습화와 결과들이 남은 것이지 유전된 저주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상에서 얻는 용기와 확신이 크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게 저주스러운 병, 관습들이 저주를 끊는 세미나에 가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유전적인 저주라는 해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유전적인 저주라고 해석했던 경험상의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을 뿐이다. 그

3.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생각할

때의 신학적/신비적 요소보다 영적

· 윤리적, 인격적 삶을 중요시해야 한다

·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

한 주장은 인간의 본질을 쥐면하게

하기보다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인

격적인 삶이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기 때

문에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 이 논의의 윤리적/신비적 요소보다 영적

· 윤리적, 인격적 삶을 중요시해야 한다

·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

한 주장은 인간의 본질을 쥐면하게

하기보다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인

격적인 삶이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기 때

문에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 이 논의의 윤리적/신비적 요소보다 영적

· 윤리적, 인격적 삶을 중요시해야 한다

·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

한 주장은 인간의 본질을 쥐면하게

하기보다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주장은

본질보다는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러나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목회적 실천적 해방만 성도들에게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적인 현상들과 같이 세워나갈 때에 훨씬 더 완전한 진리를 우리는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주(註)

· 령있게 표현하지도 못하였다. 이 책은 원리적인 책이라기 보다 오히려 성경학적 논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쓴 실천적인 것이다. 또 저주 인용되는 M. Hilkey의 *Break the Generation Curse* (Denver, 1988;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최기운 역, 베다니, 1997) 역시 논리의 비약이 심하고, 수많은 성경인용이 자의적인, 균형을 잃은 책이다. 한국사람 이운호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베다니, 1999)도 철저히 실천적인 책이다. 이 책의 3~4장에서 짧게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있는데(pp.36~60), 성경 해석과 결론은 피상적이며 독자적인 주석이 없으며, 전형적으로 자기 결론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는 꼴이다. 앞으로 이단논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의 추천을

받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책에 길수록 많이 인용하는 행동은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운호의 책에 나열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격적인 text 학자들은 거의 없고 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적인 학자들이고 나머지는 이 논의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다.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추천해주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런 리스트를 책에 올리는 행동 자체가, 이 논의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다른 사람과 함께 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